

2007년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李允宰(1888-1943)

(약력) 환산(桓山)<sup>1)</sup> 이윤재(1888-1943)는 1988년 12월 25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나, 1908년 김해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계성학교와 춘잠(春蠶)학교에서 수학한 후, 마산 창신학교, 의신여학교, 평북 영변의 승덕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했다. 그리고 1921년 중국 북경으로 유학하여 1924년까지 북경대학 사학과에서 수학하였다. 북경에서 귀국한 그는 오산, 배재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는 한편, 최남선이 주도한 계몽구락부의 사전편찬사업에 참여하였고, 1929년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면서 조선어연구회의 일원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1931년 조선어연구회가 조선어학회로 개편되면서 그는 조선어학회 기관지인 <한글>의 편찬과 발행을 전담하다시피하였으며, 30년대 이후 조선어학회가 심혈을 기울인 철자법 통일과 표준어 제정 사업을 주도하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1943년 12월 8일 함경남도 함흥감옥에서 옥사하였다.

(북경 유학 시절) 북경 유학 시절은 그가 어문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였다. 당시 중국을 휩쓸고 있었던 신문화운동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그에게 민족적 자신감을 심어준 사건이었다. 중국의 신문화운동이 수천 년을 지배해온 한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고전 문어를 탈피하여 언문일치적인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지식의 대중화를 시도한 혁신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한자를 철폐하고 한글로 글쓰기를 하는 것이 진보임을 확신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여기에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학 시절의 경험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만을 강화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글로 쓰기’만이 아니라 ‘한글로 쓰는 글’의 문제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신문화운동을 주도했던 胡適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던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의 문학’ 창조는 곧 ‘문학의 국어’ 창조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백화문에 바탕을 둔 창작을 역설한 호적의 견해는 곧 조선어 문학 작품에서 조선어의 전범(典範)을 찾고자 했던 그의 관심과 깊이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1922.11.05. “中國의 새 文字(上).” 「東明」1-10.

1922.11.12. “中國의 새 文字(下).” 「東明」1-11.

1923.04.15~05.05. “胡適氏의 建設的 文學革命論.” 「東明」2-16~19(4회 연재).

(귀국 후 활동) 그의 귀국 후 활동은 크게 ‘어문규범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 ‘사전편찬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어문규범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

1) 이회승은 한 회고(신태양 57년 8월호, 인간 이윤재)에서 “호를 환산(桓山)이라 하여, 환인(桓因) 환웅(桓雄)의 후예라는 것을 골수에 새겨 넣었고, 단군이 마련한 강산에서 살다가, 그 산천의 흙보탬이 되겠다는 것을 가장 힘있게 인식하고 맹서한 것이 그 호의 유래가 아닌가 한다.”하여 이윤재의 민족의식을 칭송하고 있다. 이는 이윤재가 기독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종교의 민족주의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1926.05. “조선글은 조선적으로-訓民正音 第八回甲紀念-.” 「新民」2-5.  
 1926.11. “朝鮮文과 語의 講習을 實行하자-우리 文學의 普及策-.” 「新民」2-11.  
 1927.02. “安廓君의 妄論을 駁함-한글토론(二)-.” 「東光」2-2.  
 1927.10.24-26. “世宗과 訓民正音-한글 出現의 經路와 沿革.” 「東亞日報」.  
 1928.11.09-11. “한글 整理에 대한 諸家의 意見(七, 八)-李允宰.” 「東亞日報」.  
 1929.06.02. “한글 整理는 어떠한가-李允宰.” 「朝鮮日報」.  
 1929.09-1930.06. “한글講義.” 「新生」2-9 ~ 3-6까지.

그가 어문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귀국 후 이병기 등과 교류하며 조선어학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가 1926년부터 조선어문에 관한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이즈음에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 전신)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에 발표된 그의 글은 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것이며, 여기에서 거론된 그의 맞춤법 이론은 1929년에서 1930년 사이에 8강으로 나누어 집필한 “한글강의”에 종합적으로 제시된다. 그런데 그의 어문규범 연구를 살피는 데 있어서 빠뜨려서 안 될 것이 그가 편찬한 「文藝讀本」(1931)이다. 사실 「문예독본」에서 한글 맞춤법과 관련한 부분은 부록에 첨부된 “한글綴字法 一覽表”뿐이다. 그러나 「문예독본」이라는 책의 성격과 관련지어 볼 때, 「문예독본」은 그의 어문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문예독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어문관이란 무엇일까?

- 1931.05. 「文藝讀本 上」, 진광당.  
 1932.02. 「文藝讀本 下」, 한성도서출판주식회사.

그는 규범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효율적으로 보급하여 질서정연한 조선어 공동체를 이루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한글 강습회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조부흥운동에 참여하고 「문예독본」을 출간한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맞춤법 통일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간한 「문예독본」은 당대의 전범(典範)이라고 할 만한 작가의 글을 통해 한글문체와 한글맞춤법을 익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당시 「독본」의 출현은 규범적인 그리고 모범적인 한글 문체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의 출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윤재의 「문예독본」은 최남선의 「時文讀本」과 이태준의 「文章講話」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저작으로, 글쓰기교육의 차원에서 史的 검토가 필요하다.

「문예독본」 출간 후 어문 규범과 관련한 글로는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반대하는 조선어학연구회 측에 대한 반박문, 한글 맞춤법(신철자법과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대한 해설문 등이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의 것에서 달라진 바가 없으며, 이를 볼 때 그는 이 당시 한글 맞춤법의 보급과 사전 편찬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인쇄소나 신문사 등 일반 사회에 통일안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는 한편 목사인 강병주와 함께 기독교계에 통일안을 보급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독교 책이 조선어학회의 통일안을 따르게 되었다.

- 1932.03~04. “한글綴字法 講座(1), (2).” 「新生」5-3~5-4.

- 1932.04. “對答할 나위도 없다-한글 綴字에 대한 新異論檢討.”「東光」32.  
 1932.07. “變格活用の 例.”「한글」1-3.  
 1932.10.29~11.02. “한글 運動의 回顧.”(4회)「東亞日報」.  
 1932.04.01~06.09. “한글 綴字法-「新綴字法」의 解説.”(21회)「東亞日報」.  
 1932.07. “한글은 어떤 것인가-女子夏期大學講座 한글科-.”「新家庭」1-7.  
 1933.10.29~11.02. “母語運動의 概觀.”(4회)「東亞日報」.  
 1933.11.11~12.30. “한글마춤법 통일안 해설.”「朝鮮日報」.  
 1934.01. “한글마춤법 統一案 制定의 經過 記略.”「한글」1-10.  
 1935.03. “필경 學生까지 煽動하느냐-正音誌의 輕妄을 戒함.”「한글」3-3.  
 1936.09. “聖經綴字를 改正하라.”「한글」4-8.

### 사전편찬과 관련한 연구 및 활동

그는 맞춤법을 제정하고 표준어를 사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모든 조선인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사전이었다. 그는 사전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사전 편찬 사업에 뛰어 들었다.

계명구락부에서는 27년에는 광문회의 ‘말모이’ 원고를 인수하여 조선어사전을 편찬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윤재는 최남선, 정인보, 임규, 변영로, 양건식, 한징 등과 함께 계명구락부의 사전편찬 사업<sup>2)</sup>에 참여하여 ‘고어(古語)’ 부분을 책임 집필하였다. 그러나 이윤재는 1929년 조선어연구회 주도의 조선어사전편찬회가 결성되면서 계명구락부의 사전 편찬 사업에 손을 떼게 되고, 이후 조선어사전편찬회의 편찬 사업에 전념한다.

그는 편찬 상무위원이자 집행위원으로 조선어사전편찬회의 결성<sup>3)</sup>부터 이극로, 최현배, 신명균 등과 함께 했으며, 조선어 사전편찬 사업이 조선어사전편찬회에서 조선어학회로 이관된 뒤에는 맞춤법 제정 및 표준어 사정 활동<sup>4)</sup>과 연관 지어 사전편찬 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였다.

또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 사업과 별도로 진행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 편찬에도 관여하여 이를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사전이 나오기 전 중사전 규모로 발간된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38)이 최초의 국어사전이라는 점에서, 이 사전의 발간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5)</sup>

- 2) 최남선은 조선어사전 편찬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았고, 정인보는 편찬원 감독의 책임을 한징은 서무의 일을 맡았다. 실질적인 작업을 분담하였는데, 최남선은 역사, 지리, 제도, 종교, 철학 등에 관한 말을, 정인보는 한자에 관한 말을, 임규는 동사와 형용사를, 양건식은 신어(新語)를, 이윤재는 고어(古語)를, 변영로는 외래어(外來語)를 맡았다.
- 3) 조선어학회 사건과 관련한 공소장에 나와 있다. 공소장에는 이윤재를 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상해를 다녀온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사실 이윤재는 상해에서 김두봉을 만났고, 그에게서 사전편찬을 위한 원고를 받아오도록 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는 김두봉에게 200원이라는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 4) 표준어 사정 활동은 어문 규범 활동의 하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전편찬에서 뜻풀이를 확정하는 활동의 일환이었다.
- 5) 환산이 그날그날의 격무에 부딪이며, 밤이머는 집에서 사전편찬을 위한 카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안 청람 문세영 씨가 매일 밤 환산댁을 내방하여 작업을 함께 하던 중, 일의 진척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청람은 환산과 관계를 끊고 자기 단독의 명의로 [조선어사전]을 출판하였다. 그 재료가 원고(카드)의 태반은 실로 환산의 손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람으로부터 하등의 인사말이나 사례를 받아 보지 못한 환산은 고약한 친구라고 분개한 일이 있었다.(이희승, ‘인간 이윤재’, [신태양], 1957.8.)

그는 수양동우회사건(1937년)으로 투옥되는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조선어학회의 사전편찬 사업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지만, 1940년에 이르러 조선어사전이 조판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실질적인 사전 편찬 작업은 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나온 사전은 그의 사후 사위되는 김병제에 의해 편찬된 「표준조선말사전」(1947)이었다. 조선어학회의 편찬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이 사전은 큰 사전이 완간되기까지 언어생활의 표준이 되는 사전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참고문헌>

高永根(1988). “李允宰.” 「周時經學報」 2.

金敏洙(1990). “朝鮮語學會의 創立과 그 沿革.” 「周時經學報」 5.

金敏洙(1992). 「新國語學史」(全訂重版) 서울: 一潮閣.

리원주<sup>6)</sup>(2001). 「민족의 얼」 평양: 문화예술종합출판사.

<2007년 11월 22일 최경봉>

---

6) 이 책의 저자 리원주는 이윤재의 자제이다. 이 사실은 큰 사전 편찬원이었던 이강로 옹과 복측 연구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